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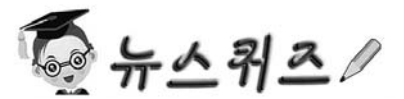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앗! 정액에 피가...

당황스럽다. 성관계 이후 정액에서 피가 나왔다. 무슨 병에 걸린 걸까. 혹시 성병인가. 미혼 남성들은 더하다. 불임이 되는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성 클리닉에 전화 해보고 인터넷을 다 뒤져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 직접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혈정액증이라고 한다. 주로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환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준다.
증상도 거의 없다. 한동안 모르고 지나다가 콘돔을 이용한 성교나 자위 행위 뒤, 또는 부인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색깔은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검붉은 피간 섞여 나온다. 이 경우 이미 출

혈된 피가 사정시 정액과 함께 배출되는 것이다.
혈정액의 원인은 다양하다. 보통 염증·낭종이나 사정관 폐색·종양·혈관 질환·전신 질환·외상성 원인 등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이 45%가 넘는다.
진단 과정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종양과 관련된 부분은 불과 2%였다는 점. 따라서 혈정액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안심시키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문진, 요 검사, 전립선액 검사, 혈청 특이 항원, 경직장 초음파 등을 시행한 뒤 정상소견이 보이면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비정상 소견이 보이면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한다.
원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치료 방법도 여러가

지다.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피로하면 이유없이 코피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정액에 피간 섞여 나온다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일과성으로 자연소실될 수 있으므로 몇차례 사정을 거쳐 경과를 지켜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치료 받아도 늦지 않다.
전립선이나 정낭염이 원인이면 항생제요법과 온좌욕을 하면 도움이 되고 지혈제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혈정액증이 있는 환자들의 걱정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옮기는 것 아니냐. 기혼 남성의 경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병을 잘 모르는 탓에 부부 사이가 악화되기도 한다. 남성들은 심한 경우 심인성 발기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 40세 여성은 동갑내기 남편의 갑작스런 혈정액증을 성병의 한 유형으로 잘못 이해했다. 남편이 외도해서 생긴 것으로 판단한 것. 이후 남편을 못 미더워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시비가 일었고 결국은 헤어졌다.
또 자위 행위 중 갑자기 발생한 혈정액증에 놀란 나머지 전혀 발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기도 했다. 모든 검사 결과 발기 상태는 정상이었다. 이 환자의 증상은 혈정액증으로 인해 자신의 성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비롯된 심인성 발기장애, 약간의 발기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결국 이 병으로 인해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특히 상대방에게 병을 전파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염려는 전혀 없다.
불안해 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정확한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진료 행위를 한 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바로 의사가 할 일이다.
<전문의비뇨기과 원장>



88. 지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 가수가 마침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주)에당엔터테인먼트는 최근 "15주년 기념 음반을 29일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데뷔해 '난 아이야'를 시작으로 '컴백홀'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1990년대 대중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서태지 ②조용필 ③남진 ④나훈아
행운의 숫자: 19.31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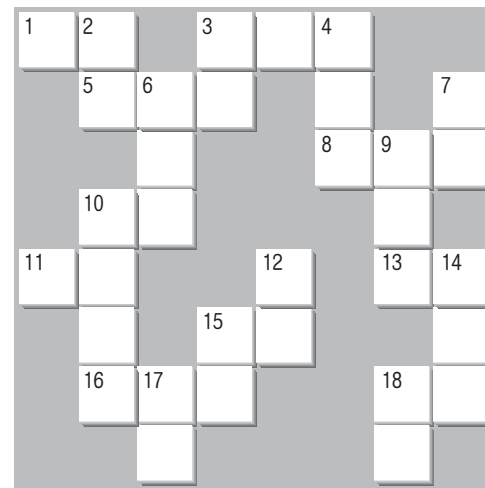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그가 뇌물을 받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은 되지 않았다. 3.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명령', '팽팽', '우당탕' 등이 있다. 5.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8. 두 부분으로 나뉘어 방송되는 드라마 작품. 이 드라마는 두 번 방송되는 ~으로 구성돼 있다. 10.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해 없애 버림. 교통난 ~. 11. 강이나 호수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 올.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는 강에서 ~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3. 한집안에서 만가 되는 후손. →만손자. 15.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옳.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을 심어 주다. 16. 심어서 기른 산삼을 이르는 말. 18. 음식을 담은 기구를 통

틀어 이르는 말. 또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로풀이

- 2. 생김새나 됨됨이로 본 사람. 그는 ~이 참 좋다. 3. 의무경찰의 줄임말. 4.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6.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부설되어 그 사물이나 장소를 소개해 알려 주는 일을 맡아 하는 곳. 7.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 →가작. 9. 대학에서 총장제 다음 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10.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바닷가를 이르는 말. 12. 익히지 아니하고 날로 먹음. 또는 그런 음식. 14.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는 등의 나쁜 버릇. 그 아이는 ~이 나빠서 친구들의



<함께 풀어봅시다 274회 정답>

▲지나주 정답자

이미라·광주시 북구 운암동
강경완·광주시 서구 치평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음 9월 26일 癸卯)

36년생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라. 48년생 친구의 도움이 결정적 이 될 것이다. 60년생 가슴은 답답하나 깊은 보된다. 72년생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 보라 그 이상이 돌아오리라. 84년생 고생은 되나 보람은 있다. 행운의 숫자: 06, 28

37년생 돈거래는 손재가 된다. 49년생 시작은 미미하나 진행은 꾸준하다. 61년생 협상의 테이블에 나타나니 당당하게 나가라. 73년생 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85년생 새로운 형상이 뚜렷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9, 31

38년생 안이나 밖이 모두 소란스럽다. 50년생 시비가 다발하고 불온어떤 송사까지 갈수도 있다. 62년생 송사와 구설이 생기기니 이웃과 화해하면 좋으리라. 74년생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행운의 숫자: 18, 32

39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곧 해결 될 수다. 51년생 집안 모두가 흥나고 자녀의 고통이 불어 닥친다. 63년생 승승에 뚫을 다 나 때사가 순조롭다. 75년생 친인척의 불려사가 나에게까지 돌아오니 주변을 살피라. 행운의 숫자: 15, 33

40년생 외부는 소란스럽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52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64년생 고생은 크나 결과는 불만이다. 7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니 움직여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03, 43

41년생 언컨데 달린 일이 생길수도 있으나 조심하라. 53년생 신체적 불편이 올 수도 있으나 자신을 살피고 보라. 65년생 고역이 점점 소멸되고 행운이 다가온다. 77년생 마음편한 하루다. 행운의 숫자: 05, 40

4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니 마냥 즐겁다. 54년생 주변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대고는 없다. 66년생 부친의 건강을 살펴보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78년생 꾸준한 진행이던 일이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8, 41

43년생 어떤 만큼 성숙하니 걱정은 없다. 55년생 김다홍소 손재가 발생하나 결과는 좋으리라. 67년생 가정에서 큰소리가 외부로 번질까 걱정이야. 79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며 갈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07,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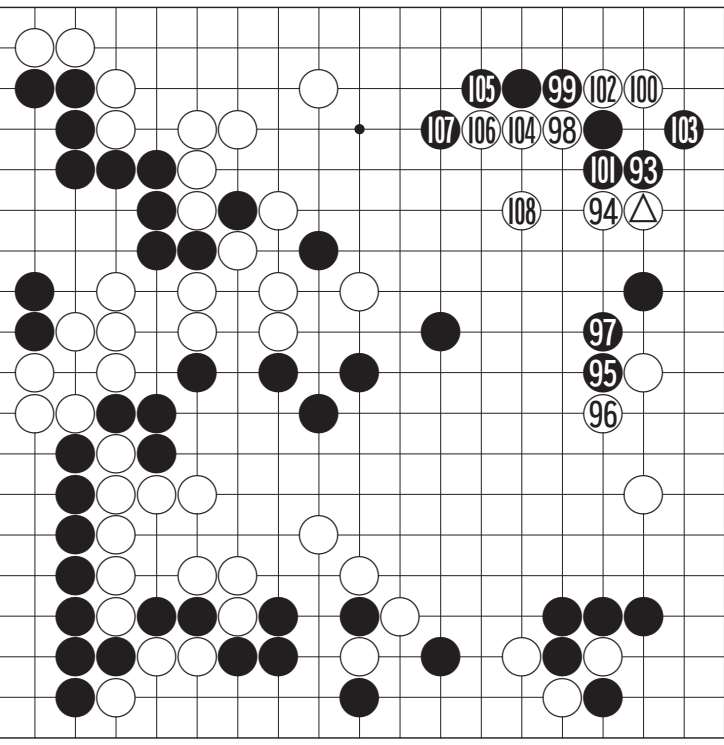
44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여유를 가져라. 56년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득재 한다. 68년생 충분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은 절대 금해야 한다. 80년생 화장은 금물이고 분수를 지켜야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06, 39

45년생 새로운 문서에 의문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결정하라. 57년생 가까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만나야 한다. 69년생 오늘을 쉬어라. 81년생 모든 규모는 줄이고 내실을 기해야 득이 심보다 크리라. 행운의 숫자: 22, 16

46년생 바쁜 하루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58년생 미운사람이 방해하는 형상까지 겹치니 원망해라. 70년생 남자는 처가 여자는 남편이 일고를 담담 우려가 있다. 82년생 고국한 하루이나 늦게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 행운의 숫자: 23, 43

47년생 지축이 흔들리는 언쟁이 나타나니 서로 이해를. 59년생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남의 눈물도 보라. 71년생 갑작스런 지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비를. 83년생 직업변동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감수하라. 행운의 숫자: 24, 27

www.cafe.daum.net/sajjo114 ☎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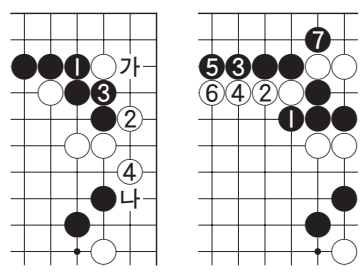


광주시 바둑협회 최강배 바둑대회

잡으러 간 약속 7부(93~108)

최강부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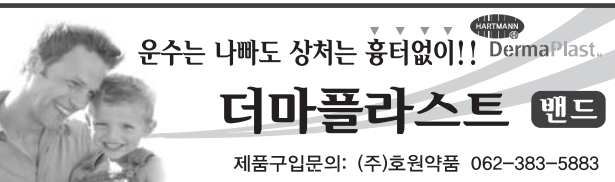


백 100이 가볍게 던지는 짚으로 적시의 응수타진이다. 이때 흑 101은 정수. 이 수로 '참고도1'의 1로 잇는 것은 백 2, 4 다음 '가'와 '나'가 맞보기가 되어 낭패다. 그런데 102로 끊어왔을 때 흑이 103으로 귀를 잡으러 간 수가 귀를 잡는데만 급급한 수로 대약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도2'의 흑 1로 붙어야 했다. 흑 7까지면 흑 우세. 104로 밀어간 수가 날카로운 수로 108까지 흑이 절려든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GS칼텍스배 먼저 웃다

이세돌 9단이 지난 3일 중국 칭다오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도전 5번기 제1국에서 도전자 박영훈 9단을 140수 만에 백 불계로 꺾었다.
이날 대결에서 이세돌은 중반 한 때 상대의 역습을 당해 주도권을 잃기도 했으나 종양의 흑 대마를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후반에 큰 집을 만들어 짜릿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도전 2국은 오는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강원랜드배 명인전, 전자랜드배 왕중왕전과 함께 국내 3대 기전으로 꼽히는 GS칼텍스배의 우승 상금은 5천만원. 박영훈은 7전 전승을 거두고 도전권을 획득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26>

Where would you like to sit?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 A: Welcome. Where would you like to sit? Smoking area or non-smoking area?
B: The non-smoking area, thank you.
A: This way, please. Here is the menu. Can I get you anything to drink first?
B: Ice tea, Please.

- A: 어서 오십시오. 흡연석, 아니면 금연석입니까?
B: 금연석으로요.
A: 이리 오십시오. 여기 메뉴표가 있습니다. 먼저 마실 것은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B: 얼음 물, 부탁드립니다.

- \* Where would you like to sit?
= which area would you like to sit in?
\* Can I get you anything to drink first?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 Can I get something for you to drink?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26>

売(う)りが来(き)て困(こま)っちゃった。
판매원이 와서 곤란했어.

- A: 今日(きょう)ね, ふとんの押(お)し売(う)りが来(き)て困(こま)っちゃった。
B: すぐにドアを開(あ)けちゃだめだぞ。よく(確)たし(か)めな(き)ゃ。
A: そうね。いらなくて言(い)うのに, ふとんを置(お)いて行(い)こうとするのよ。
B: うまい話(はなし)をして, しつこいんだから。

- A: 오늘은, 이불 강매하는 판매원이 와서 곤란했어.
B: 바로 문을 열면 안 되지. 잘 확인해야해.
A: 그렇지. 필요 없다고 해도 이불을 두고 가려하잖아.
B: 능숙한 말씀씨로 곤란하다니까.

ふとん: 이불
押(お)し売(う)り: 강매하는 방문 판매원
困(こま)っちゃった: 곤란했다
しつこい: 끈질기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3>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 A: 你好!
Ni hao!
니 하오.
B: 你好!
Ni hao!
니 하오.
A: 认识你很高兴。
Rènshi nǐ hěn gāoxìng.
인식 니 헨 갠싱.
B: 认识你很高兴。
Rènshi nǐ hěn gāoxìng.
인식 니 헨 갠싱.

-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만나서 반갑습니다.
B: 만나서 반갑습니다.

认识 [Rènshi] 알다
高兴 [Gāoxìng] 기쁘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43>

麻中之蓬(마중지봉)
삼 마, 가운데 중, 어조사 지, 속 봉

마중지봉(麻中之蓬)은 삼 가운데의 속이라는 뜻으로, 삼밭에 난 속은 받쳐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좋은 환경이나 올바른 사람 사이에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순자(荀子)' 권학(勸學)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서쪽 지방에 사간(射干)이라는 이름의 나무는 줄기 길이는 네 치밖에 되지 않으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가 휘어서 백 길이나 되는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다. 반면에 삼밭에서 자라는 속은(蓬生麻中) 불들어 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고(不扶而直), 진흙 속에 있는 흰모래는(白沙在涅) 함께 검어진다(與之俱黑)."
이것은 나무줄기가 길어져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유이다. 속은 보통 곧게 자라지 않지만, 똑바로 자라는 삼과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삼을 닮아 가면서 곧게 자란다는 것이다.
하찮은 속도 삼과 함께 있으면 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에게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의 근주자적(近朱者赤)·근묵자흑(近墨者黑), 또는 굴화위지(橘化爲枳)·남극북지(南橘北枳), 그리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와도 통하는 말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